

과학기술자들 스스로 자긍심과 책임의식을 갖자

글_ 정명희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mhjung@kRICT.re.kr

자 연계 학문을 연구하여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무엇인가 유용한 일을 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인'이라고 칭한다. 많은 과학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독창적이든, 아니면 모방에서 비롯되었든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였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으로 최근 1년 가까이 토론이나 세미나에 참가하면서 그 동안 수십 년간의 연구생활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우리 나라의 연구비, 연구개발 실태, 산업체에 관한 여러 정황들을 다각적으로 접할 수 있었다. 실제로 지금은 연구비나 연구인원의 규모가 점차로 커지고 있어 기술개발도 마찬가지로

진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듯하다. 그러나 발전에 발전이 거듭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와는 달리, 최근 몇 년간 GNP 성장은 멈춘 것처럼 보인다. 현장의 연구자들도 갈수록 어려움을 호소한다. 왜 아직도 과학을 한다는 것이 이토록 힘이 드는 것일까?

지속적인 연구 있어야 과학 발전 가능

과학기술의 발달은 아주 우수한 두뇌의 획기적 아이디어에서도 나올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경우도 있다. 과학의 창의성 개발과 기초 실력 향상은 모든 과학분야에 걸쳐 요구되는 우선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과학의 발전을 위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연구의 연계성이다. 과학기술은 말이나 글로 다듬어 놓듯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30~40년의 과학기술 개발의 역사를 돌아볼 때 국가 번영을 목표로 중점 기술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 고유의 기술을 갈고 닦아야 할 시점에 우리 나라는 정치적 혼란기에 처해 있었다. 국가 발전을 목표로 묵묵히 연구에만 몰두하기에도 버거웠을 과학계로서는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으로 과학의 발전을 일구어나간다는 것은 더군다나 지난한 작업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IMF를 맞아 꼭 필요한 연구도 접어야 했고,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쌓은 후배 과학자들에게 일자리 창출은커녕, 경험을 가진 연구자들마저 일찍 연구소를 떠나야만 하였다.

최근 수년 동안 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 발전과 더불어 대두된 개혁 성향은 과학계에도 큰 여파를 미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을 중심으로 국가과학기술





술체계(NIS) 구축 방안을 수립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방안들이 그대로 운영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현실적 실현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이들은 조사, 분석, 평가를 잘 하면 된다고 한다. 혹은 기획을 잘하여 로드맵을 잘 그리면 된다고 한다. 어떤 이는 연구비 배분이 잘 되면 된다고 하고, 부처 이기주의가 없으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연구비의 배분, 평가, 분석, 조사 등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일하는 사람이 옹계 하지 않으면 잘 될리 없고, 일하는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역시 힘들지 않았던가. 그렇지만 모두가 알면서도 매번 변화된 연구 테마요, 새로운 개혁 시스템이라 하여 그냥 묵과하지는 않았던가.

새로운 일들에 대한 도전은 물론 필요하다. 새로운 것을 찾는 작업도 우리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정직하고 합리적인 기획과 계획이 있으면 그 또한 과감하게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함께 정확한 판단과 합리적 사고로 기획하고, 평가하는 자세 또한 가져야 할 것이다. 지난 30~40여 년을 돌이켜 볼 때 우리들은 장거리 코스를 1백m 달리기를 하듯 단걸음에 달려온 느낌이 없지 않다. 결승점은 아직도 까마득하게 멀리 있는데 체력은 점점 소진되어 가는 형국이 아닐까. 지금은 스페이스의 간격을 줄이면서 저장된 힘을 확인하고 새로운 힘을 내기 위한 에너지의 충전이 필요한 시기인 듯하다.

과학자들의 운명공동체 의식 필요

다른 전문분야도 그렇겠지만, 특히 과학 기술의 발전은 혼자만의 연구를 통해서만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연구비도 많고,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수의 과학기술인들은 절

실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필자가 만나본 많은 과학자들, 특히 여성과학자들 중에서 우리의 연구 상황이 선진형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드물다. 어려운 상황이 어찌 과학기술계만의 문제일까마는 유독 이곳이 남다른 관심을 촉구하는 것은 우리 나라가 더욱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과학기술의 발달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과학기술자가 짊어지고 나갈 짐이고,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과학기술자들의 위치는 객관적인 잣대로 보면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다. 모두들 대우가 나아지면 이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 또한 맞는 말이다. 과학기술 분야는 특성상, 특히 국가의 연구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한 참여정부에서는 과학기술입국을 지향하면서 여러 정책들을 펴나가는 한편 국민들의 과학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높이고자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도 실천하고 있다. 여성과학자들을 위한 우대 및 육성 지원정책들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지속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제도적·행정적인 이해와 뒷받침이 있다고 하여도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자들 스스로의 자긍심과 책임의식이 없다면 이는 무의미한 일일 것이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는 운명공동체적 인식, 이것이야말로 우리 과학자들이 오늘 다시 한번 되새겨보아야 하는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한다. ㉓



글쓴이는 이화여대 약학대학을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필립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겸임교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과학기술부 여성과학인 육성위원회 위원,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